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감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백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일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231호 / 자매: 윌라멧 A)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한인부 목장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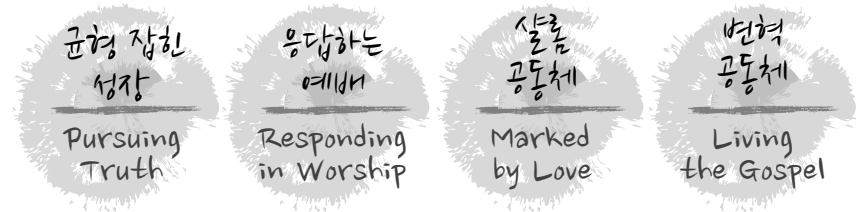
한인부 목장은 6가정(가족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생활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족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연	조용희/희정	금 7:30pm
	IMAN	나정우/찬미	금 7:30pm
	MK	김민수/미숙	금 7:30pm
	메나	홍영기/진영	금 6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a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화 8pm
형제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샤론	손국자	주중 저녁
	아테네	이미영	주일 7p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미정	강교현	수 10am
	ACA	김행자	목 10am
다문화	나진	김릴리	수 4pm



봉사 당번 안내

	6/25	7/2	7/9	7/16
헬로우십 다과	테이블	테이블	다같이	테이블
어린이 돌봄	장경민, 박주애 / 박영미, 유재연	임은숙, 최정아 / 이찬미, 황진희	신윤선, 이주영 / 이윤경, 이창열	장경림, 최설아 / 김새롬, 전해경
주차 봉사	조성갑/박범찬	유규하/황성현	유광현/홍영기	이호순/이형섭
예배 안내	메나 (6월) & 라운 (7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제자들의 특색: 선함

The Marks of Disciples: Goodness

본문: 창세기 2:15-17 & 3:1-7

설교: 최규진 목사

창세기 2장 15-17절

- (15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 (16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 (17절)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3장 1-7절

- (1절)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 (2절)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 (3절)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거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 (4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 (5절)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 (6절)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 (7절)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indwelling) 다스리심 (take control)의 열매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홉가지 열매 (결과)를 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 '선함 (goodness)'에 대해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선함'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해는 문화와 세대마다 다르게 이해되고는 합니다. 또 '하나의 행동이 선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동기, 방법, 결과가 있듯이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개념의 '선함'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함'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비롯한 성경이 전반적으로 증언하는 바는, 성경적 개념의 '선함'이란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선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아니라, '선함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선한 삶이고, 반면, 무시하는 것, 독립적으로 살아가거나, 독립적으로 행하는 일을 가리켜 악함 (혹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함'이란, "될 수 있는 한 많은 선한 일들을 해야겠다"는 자기 의지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분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일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함'이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향한 사랑과 민감함이 근간이 되어, 그분과 더불어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선함'이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삶으로 말씀 읽기:

- (1) '선함 (Goodness)'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함'과 성경 (특히 창세기 2-3장의 선악과 이야기)이 묘사하는 '선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나누어보십시오.

What is your standard of goodness? What defines/justifies an action to be considered as good? How is it compared to the concept, as illustrated in the Genesis 2-3 (and the overall Scripture)?

- (2) 성령님이 오늘 그리고 요즘 성도님 안에서, 그리고 성도님을 통해서 함께 행하고자 하시는 선함은 무엇이라고 분별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is the goodness that the Holy Spirit wants to see in and through you today and these days?

- (3) 성령님보다 앞서서 너무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What goodness are you doing, following after the Spirit's guidance? Are there any 'good things' that you are endeavoring to do now, but that are not really what God asked you to do?

- (4)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더욱 귀 기울이기 위해서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 및 훈련 하시겠습니까?

In order to live by the Spirit, what would you need/change in your life?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핍박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변혁사역팀

핍박받는 전 세계 크리스천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이하, 오픈도어) <https://www.opendoors.or.kr/> 는 매년, 국가별 기독교 박해 순위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지난해 1억 명에서 올해는 1억 3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박해로 연간 7000여명이 희생됩니다. 공격을 받은 교회도 작년보다 약 두 배 많은 2,300여 교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해는 단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모든 종류의 적대적 경험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삶, 지역사회, 국가와 교회생활의 범주에서 발생합니다.

시리아 (Syria) 의 크리스천 박해 상황을 알려 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종교 : 이슬람교- 수니파 이슬람교(74%), 시아파계 이슬람교(16%),

-인구 : 약 1,800만명, 기독교인: 80만명

-박해정도: 매우 극심함. 세계박해순위6위

-주 박해요소 : 이슬람교의 탄압, 민족적 적대감, 편집증적인 독재, 조직적 부정부패 및 범죄

시리아(Syria)는 박해 점수 86점을 기록하여 2017년 세계박해순 위(WWL) 6위에 올랐다. 이는 2016년의 기록(87점, 5위)에서 소 폭 하락한 것이며, 작년에 비해 교회 또는 기독교인 소유의 상점 및 일터 습격 사례가 적게 보도되었다. 이슬람 국가(IS) 및 이슬람 반군 점령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탄압 가운데 놓여 있다. 폭력 사태 보도가 줄어든 이유는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이미 해당 지역에서 대피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지난 집계 기간 동안 이미 파괴되었다. 박해 점수 하락의 또 한 가지 원인은, 현재 내전으로 인해 혼돈에 휩싸여 있는 국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시리아의 박해상황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오늘날 시리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주체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슬람 국가(IS) 대원들, 그리고 알 누스라(al-Nusra Front; 시리아 반군조직) 등 여러 과격 집단들이다. 내전 발발 이전의 시리아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비교적 많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었다. 그러나 이슬람 무장 집단 IS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민족적 적대감(Ethnic antagonism): 개인이 소속 부족 또는 가문에게 충성하는 것은 부족 중심주의 (tribalism) 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부족 중심주의는 소속 구성원들에게 낯은 규범과 가치를 계속해 서 강요하려 한다. 중동 지역의 수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시리아의 부족 중심주의 역시 이슬람교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 (Muslim Background Believers, MBBs) 들에게 많은 타격을 입힌다.

편집증적인 독재 (Dictatorial paranoia): 내전 이전의 시리아에서 편집증적인 독재는 주로 정부 관리들에게서 나타났다. 예컨대 국가가 교회를 감시하여 설교 중에 정치적 내용이 언급될 수 없도록 했다. 오늘날 시리아 정부는 반군 세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감시할 겨를이 없다. 물론 전쟁 중인 만큼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움직임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의 시리아에서 편집증적인 독재의 주체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라 무장 집단들이다. 이들은 시리아 각지를 점령하고 있으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조직적 부정 부패 및 범죄 (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내전으로 인해 처벌이 부재하고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직적인 부정부패 및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인질을 붙잡아 몸값을 요구하는 등의 중 범죄가 빈발 하고 있다. 여러 다른 종교의 시리아인들이 납치 당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납치 배 후에는 경제적, 정치 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공존한다. 기독교인들은 부유 하며 국가 정권에 지지적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이 아닌 소수 집단이라는 사실 역시 납치 사건을 발생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박해배경

시리아 내전은 2011 년 민중의 봉기로 시작되었다. 시리아 민중들은 자유의 확대 및 경제적 구조 조정을 요구했다. 같은 시기에 기타 아랍 국가들에게서도 비슷한 시위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시리아 사회의 갈등은 훨씬 더 뿌리 깊고 복잡했다. 여기에는 계급간 갈등, 농촌과 도시 간의 갈등, 정치적 자유의 억압 등 여러 방면이 작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시위는 극도로 폭력적인 종파간 갈등으로 신속히 확산되었으며, 현재 이미 6년째 계속되고 있다. 갈등의 주체는 이슬람 수니파 (Sunni) 와 이슬람 시아파 (Shia) 이다. 시리아 반군 세력은 점차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으며, 내전 역시 갈수록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지하드 (이슬람 성전[聖戰]) 의 성질을 띠고 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모든 시리아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취약한 집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삶의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개인 영역:** 기독교 박해는 이슬람 과격단체의 통제 지역 안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모든 교파의 기독교인들은 개별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실례로, 큰소리로 찬양할 수 없다. 확산되어 가는 이슬람 세력의 과격화로, 쿠르드족(Kurdish) 거주지를 제외하고, 그 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전국의 무슬림배경신자들 (MBBs)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

***가정 영역:**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의 신앙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그들은 더 큰 박해에 직면하게 된다. 그나마 쿠르드족(Kurdish) 지역 안에서의 박해는 덜한 편이다. 또한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은 공문서에 표시된 자신들의 종교를 변경할 수 없으며 기독교식 결혼, 세례, 장례식 등을 기록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IS 통제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이다. 전국적으로 무슬림을 배우자로 둔 기독교인인 경우, 이혼시 아이들 양육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영역:** IS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지역생활은 극도로 제한돼 있다. 신앙이 알려지면 모든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은 다양한 문제와 직면해야만 한다. 기독교인을 포함한 IS 근거지의 모든 시민들은 이슬람식 복장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보호비 명목의 상납금을 강요하고, 일정한 음식과 사업 규정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빌리지 알리판

@ 한인부

1. 빌리지 한인부의 새로운 식구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됨이 기뻐합니다: 강원재/현희, 김신영 (심성호/예준/현준), 김한나 (Anthony/예지/예은/예영/예준), 박은자, 박정렬 (명선경/성권/성현), 송경애 (Todd Baird), 오용희 (김지혜), 이문혜 (정원석/Holly/Belle), 이민진 (수애), 이혜인 (송준호/훈/민서), 전경우 (이필주/지원/채원), 정민철/은희, 조혜영 (함성일/은호/은서), 최성욱 (유경여/혜린/혜수) 형제/자매님.

2. 금주 수요일예배 (6/28)

금주 한인부 수요일예배에서는 계지영 목사님 (미주 장신대 & 풀러 신학교 설교학 겸임 교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최규진 목사는 외부 설교 사역차 (포틀랜드 성결교회 헌신예배) 출타합니다.

3. 날마다 솟는 샘물 (7월호)

7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나 헬로우십에서 수령하여 주십시오.

***국가 영역:** 나라가 내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통제구역의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국민 생활에 있어 별 다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의 신앙이 알려지게 되면,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고, 복음 전도와 이슬람 이외의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 과격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기독교인 을 포함한 모든 비(非)무슬림들은 이류 시민으로 취급 받는다.

***교회 영역:**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내 교회 대부분은 파괴됐거나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고의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었든 그 외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건 간에 상관없이 교회 건물이나 기도원을 수리하거나 복구할 수 없다.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은 전시 상황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덜 하다. 전국적으로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의 결혼은 불가능하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이다.

***폭력:** 종파간 갈등은 종교적, 인종적으로 소수집단인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극단적 무슬림들은 반기독교 폭력 사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S 선전 잡지는 사료잡힌 반무슬림 여성들을 강간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싣기도 한다. 기독교인들이 납치되어 신체적 상해를 입고, 살해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자료출처: <https://www.opendoors.or.kr/>



@ 지역사회

1. 통일 음악 콘서트 (6/25)

오레곤 두리하나 선교회 주최로 통일 음악 콘서트가 있습니다.

- 일시: 6월 25일 (주일) 6:30pm
- 주최: 오레곤 두리하나 선교회
- 장소: 포틀랜드 중앙교회 (6275 SW Hall Blvd. Beaverton. OR 97008)
- 문의: 최규홍 목사 (503-327-4918)

@ 온 교회

1.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 1) 레바논 선교 팀을 위해, 계획하는 많은 일들에 필요한 자원이 잘 채워지기를, 참가하는 팀원들의 이동, 물건 수송, 안전,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2) 레바논의 셀수 없이 많은 난민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성령께서 많은 이들을 주 안의 믿음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2. 탁구대 도네이션

교회에서 성도들이 친교 목적으로 사용할 탁구대 (Table Tennis)를 도네이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johnk@vbconline.org).

3.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7/24(월)-28(금), 6-8:30pm, 무료)

올 가을 유치원-5학년이 될 어린이들을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 초청합니다. (등록: vbs.vbconline.org)

4. 여성부 하이킹 안내 (7/29(토), 9:30am @ Jenkins Estate)

하이킹 장소는 Cooper Mountain 북서쪽 경사로로 2-3마일의 다소 언덕이 있는 길이 며, 출발 장소는 8005 SW Grabhorn Rd, Beaverton 주차장입니다. (문의: Lisa Hice) *원래 6/25 예정 되었던 하이킹이 7/29로 연기 되었습니다.

5. 포틀랜드 구제 사역 (Portland Rescue Mission, 6/25, 5:30-7:30pm)

오늘 저녁 Portland Rescue Mission's Burnside Shelter에서 포틀랜드 구제 사역이 있습니다. 공동체 내 노숙자분들께 저녁을 대접하고, 이후 채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insilk@vbconline.org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포틀랜드 구제 사역 기부 안내

포틀랜드 구제 사역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내에 비치된 PRM 통에 깨끗한 옷, 여행 용 세면 용품과 여성용 위생 제품을 기부해 주십시오. (이외 다른 물품 기부 불가)

7. 빌리지 가족 캠프 안내 (8/8(화)-13(주일) 중 원하는 기간)

올해 빌리지 가족 캠프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오피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8 spot이 남아있습니다. (문의: Susan Moore, susanm@vbconline.org)

8. 빌리지 셔틀 서비스 중단 (6/25-9/9)

여름동안 빌리지 셔틀 운행이 중단되었다가 9월 10일 다시 운행됩니다.

9. 아이돌봄 도우미 모집

빌리지 너서리에서 일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Sarah Meeds에게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arahm@vbconline.org)

10. 아이와 함께 하는 하이킹 (7/11(화), 9:30am @Fanno Creek Trail)

1-1.5마일의 쉬운 산책로로 유모차로도 산책 가능합니다.
- 주소: 8175 SW Hall Blvd, Beaverton (Arbys parking lot에서 모여서 출발)

9. 레바논 단기선교팀 파송 (Lebanon Team Commissioning)

오늘 예배에서는 레바논 단기선교팀 파송식이 있습니다. 6월 28일 오전 6:15에 교회 체육관에서 모여 기도로 배웅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섯개 교회가 함께 사역합니다. 안전과 사역의 열매, 기쁨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Crossroads Community Church(9명), Grace Community Church (8명), Seongchang Presbyterian Church (8명), Water of Life Church (7명):

Village Baptist Church (30명, Betsy Adams, Tim Brewer, Leslie Erickson, Megan Ewald, Stan Ewald, Carlos Fernandez, Julianna Gonzales, Cristina Gutierrez, Hannah Hadfield, Ron Henricksen, Tony Jeffery, Chris Johnson, John Jordan, Michelle Jordan, Ruth Jordan, Justin Jullian, Insil Kang, Jenny Kim, Jean Lee, Nicole Lee, Mike Mumaw, Michael Penner, Mauricio Rivas, Monica Rivas, Jim Smith, Shirley Smith, Tom Smith, Kim Vonheeder, Lisa Wold, Grace Yu)

2017 헌금 업데이트

5월 헌금 참여자	498 (잠재 참여자 900+)
1-5월 예산	\$1,347,164
1-5월 헌금	\$1,170,296
5월 헌금	\$220,150
6월 1-18일 헌금	\$144,480

* 헌금 참여자 (giving participant) 란?
헌금을 내는 1인 또는 1가정을 뜻하며, 대학생 한 명을 1헌금 참여자,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한 가정을 1헌금 참여자, 부부를 1헌금 참여자로 간주합니다.

빌리지 대출 (10년)	\$3,257,456
빌리지 대출 (5년)	\$1,653,732